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여러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어떤 선택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한 번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로 이어지고,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 점점 커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좋은 선택이 습관이 되어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선택들이 모여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하며, 결국 다윗을 몰아내는 길을 계속 선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압살롬은 전쟁 중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 전에 지휘관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아들이었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압살롬을 죽입니다. 본문에는 압살롬을 처음 발견한 한 병사도 등장합니다. 요압은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고 묻지만, 병사는 많은 은을 준다고 해도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눈앞의 보상보다 왕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반면 압살롬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선택했고, 요압은 자신의 판단을 왕의 명령보다 앞세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결국 누구의 말을 가장 중요하게 듣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들의 말과 내 욕심을 따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여기까지 왔으니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선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반복하고 있는 선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순간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 배 순 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 이

말 씬 봉 독 사무엘하 18:1~15절 다 같 이

설 교 내 선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욕심과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압살롬을 발견한 병사는 왜 요압의 보상 제안에도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않았나요?
2. 요즘 내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선택 가운데 계속 이어가야 할 선택과 바꾸어야 할 선택은 무엇인가요?